

한국반	한자	수업자료
-----	----	------

開	天	節
열다 (개)	하늘 (천)	절기 (절)

- 다음에 오는 한자어의 소리를 한글로 쓰세요.

1. 지난 9월 21日에는 뉴잉글랜드 韓國學校 가을學기 開學식이 있었습니다.

2. 10月 3日은 5000년 전 환웅이 한반도의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開天節입니다.

3. 天國, 天사

4. 얼스턴에 새로운 한국음식점이 開업했다네요.

5. 3월 1일- 三一節,

8월 15일- 光復節,

10월 3일- 開天節

11월 셋째 주 금요일- 秋수감사節

訓	民	正	音
가르칠 훈	백성 민	바를 정	소리 음

● 다음에 오는 문장 중 한자어의 우리말 소리를 쓰세요.

1. 世宗大王께서 만든 '訓民正音'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2. 世宗大王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큰 敎訓을 남긴다.
3. 國民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다.
4. 나는 커서 훌륭한 音樂家가 될 것이다.
5. 韓國에서는 5를 셀 때 tally(/////) 대신 바를 정(正)을 쓴다.

확인: 15- 8- 12-

1-01 이야기해 봐요



지윤



다니엘

지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지윤이에요.

다니엘 :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지윤 : 다니엘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니엘 :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지윤 : 다니엘씨는 회사원이에요?

다니엘 : 아니요, 저는 방송인이에요.

지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지윤 : 저는 학생이에요.

* 저는 김소희이에요, 저는 지나이에요, 저는 지수이에요

새 어휘/표현

모음+ 예요, 자음+ 이에요, 회사원, 방송인,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1-01 이야기해 봐요(활용)

지윤 : 안녕? 나는 김지윤이야.

지나 : 안녕? 나는 권지나야.

지윤 : 학교에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전학 왔니?

지나 : 응, 나는 독일에서 왔어.

지윤 : 유학 온 거야?

지나 : 부모님 직장 때문에 보스턴에 오게 됐어.

너는 보스턴에서 오래 살았니?

지윤 : 1) 어. 나는 2학년 때 한국에서 온 가족이

이민을 와서 계속 보스턴에 살았어.

2) 어.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3) 어.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작년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보스턴으로 오게 됐어.

4) 자신의 상황을 말해 보세요.

새 어휘/표현

* 전학오다/전학가다

* 유학오다/유학가다

* 이민오다/이민가다

* ~하게 되다

1. 다음에 오는 동사를 문장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세요.

- 끝소리 'ㄹ'이 모음 '으'를 만나면 'ㄹ'이 없어진다. (놀다→ 노는데, 노니까)
-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을 만나면 'ㄹ'이 없어진다. (팔다→ 파니까, 팝니다)

단어	종류	V/A -고	A-ㄴ/은 V-는데	V/A -(으)니까	V/A -아/어요	*V- ㅂ/습니다
놀다	동사	놀고	노는데	노니까	놀아요	놀니다
들다	동사					
만들다	동사					
벌다	동사					
살다	동사					
알다	동사					
열다	동사					
울다	동사					
팔다	동사					
길다	형용사					
멀다	형용사					

*()안에 있는 단어를 문장에 알맞게 고치세요.

- 1) 너무 < > 차 타고 가요.(**멀다**) < > 가기엔 너무 멀어요.(**건다**)
- 2) 친구랑 놀이터에서 < >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았어요.(**놀다**)
- 3) 저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서초동에 < >.(**산다**, 존대말로 바꾸세요)
- 4) 우리 집 앞에 있는 재래시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많이 < > 대형마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팔다**)
- 5) 동생이 넘어져서 아프다고 <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했어요.(**울다**)
- 6)

한국 반	발음과 표기	수업자료
------	--------	------

표기	뜻
반드시	꼭
반듯이	바르게
이따가	나중에, 잠시 뒤(시간)
있다가	머무르다 '있다'와 '-다가'의 연결 형(장소)

-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 봅시다.
 - 1) 약속은 (반드시/반듯이) 지켜야 한다.
 - 2) 여기에 (반드시/반듯이) 누워 보세요.
 - 3) (이따가/있다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 4) 친구네 (이따가/있다가) 갈게요.
 - 5) 이 숙제는 토요일 아침까지 (반드시/반듯이) 내야 합니다.
 - 6) 종이를 이렇게 (반드시/반듯이) 접으세요.
 - 7) (이따가/있다가) 친구랑 농구하기로 했어.
 - 8) 지금까지 기다리고 (이따가/ 있다가) 금방 돌아갔어요.

- 받아쓰기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한국 반	문형/문법	수업자료
------	-------	------

• **-아/-어 다**가: expressing time and sequential behavior

아들: 엄마, 출출해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엄마: 냉장고에 딸기 씻어 놔으니까 꺼내다가 먹어. 아들: 네. 제가 꺼내다가 먹을게요.	엄마: 뭐 하려고 미역을 꺼내 놔니? 딸: 엄마, 오늘이 한국에서 혼자 유학 와 있는 유라 생일이예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테니 미역국 좀 끓여다가 주려고요.
--	--

*어떻게 ‘~아 다

→ 방법: **명령어 + 다**가

사다 → 사 + 다 가	타다 →	꺼내다→
찾다→	뽑다→	만들다→
포장하다→	빌리다→	줍다→
끓이다→	데리다→	가지다→

• 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아 다

<보기> 송편을 빚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먹었어요.

→ 송편을 **빚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먹었어요.

1. 엄마 생일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생일상을 차렸어요.

→ _____.

2. 마당에 잡초를 뽑았다. 그것을 버렸다.

→ _____.

3. 쿠키를 만들었다. 친구와 먹었다.

→ _____.

4. 지갑을 안 가져와서 돈을 빌렸다. 점심을 사 먹었다.

→ _____.

5. 동생을 데려왔어요. 동생 손을 닦아 주었어요.

→ _____.

• ~ㄹ 뿐만 아니라: 사실을 덧붙여 연결

<p>선생님: 관우야,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니? 결석했을 뿐만 아니라 숙제도 구글클래스룸에 안 올라와 있네.</p> <p>관우: 네. 학교 프로젝트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오디션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출석도 숙제도 잘 할 수 있어요.</p> <p>선생님: 그래, 많이 바빴겠구나. 알겠어.</p>	<p>앵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국 사람 보다 한글과 한국문화를 더 사랑하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 씨를 모셨습니다. 다니엘 씨는 한국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에도 능통하다고 들었는데요. 다니엘 씨, 안녕하세요? 먼저 한글에 대한 다니엘씨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p> <p>다니엘: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린데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한글은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읽고 쓰기도 쉬워요....</p>
---	---

• 다음에 오는 문장을 '~ㄹ 뿐만 아니라'를 넣어 바꾸세요.

1. 한글을 글자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쓰기도 쉬워요.



2. 우리 학교는 새로 지어서 깨끗해요. 그리고 주변 경치도 아주 좋아요.



3. 드라마 '소나기'는 재미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아주 아름다워요.



4. 저희 영어 선생님은 내용 이해가 썩썩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친절하세요.



5. 아이유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예요. 그리고 연기도 잘해요.



한국반	새 어휘	아름다운 우리 한글
-----	------	------------

한글	
한국어	
자음	소리의 기본 요소이나 혼자서는 글자를 이루지 못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독립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음을 글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받침	모음 아래에 와서 여러 가지 소리를 더 만들어 내는 자음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가→1 음절, 한→ 1 음절, 왕→ 1 음절)
쌍자음	같은 자음을 두 개 겹쳐서 센 소리를 냄(ㄲ, ㄸ, ㅃ, ㅆ, ㅆ)
복자음	다른 자음을 두 개 합쳐 소리를 냄(닭, 닭은, 품삯, 짹다)
이중모음	두 개의 모음을 합하여 하나의 소리를 냄 (와, 워, 의, 왜, 웨)
소리글자	한글, 영어 알파벳, 히라가나/가타가나
뜻글자	중국 한자
발음기관	
본뜨다	

한국 문화 최고의 창작품 ‘한글’

1. 한글 창제의 동기

- 문자 창조:

1443년 세종 대왕이 창제한 ()은 무지한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쓰게 하기 위한, 백성을 사랑하는 () 사상을 바탕으로 창제 되었다.

2. 한글의 우수성

- 배우기 쉬운 한글: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 한글을 깨우치는 데 () 면 족하다.
 -한글 창제에 세종대왕과 함께한 학자 정인지: 영리한 사람은 () 나절, 미련한 사람 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치기에 족한 글자

3. 한글의 편리성

- () 글자: 중국의 한자, 방대한 문자를 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 글자: - 일본의 가나문자: 글자 수만큼만 소리 표현 가능
 - 서양의 로마문자: 모든 소리 표현에 한계가 있다.
 - **우리의 한글:**
 - 1)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 할 수 있는
()개의 (), () 체계
 - 2)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발음을 가진 세계 유일한 문자
 - 3) 몇 개의 글자와 원리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

4. 한글 발명의 과학적 원리

조형원리: 삼각형, 사각형, 원, 점, 선

();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 떠 만듦- ()개

(); 天 地 人- ()개

가획원리: ㄱ + ㄱ → ㄲ

ㄱ + _ → ㅋ

음성적으로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표현 하는 가장 진화된 문자

5. 한글의 실용성

한국 정보통신 순위 세계 9위에 큰 역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의 시스템은 문자전송과 데이터 문자전환에 적합

6.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문화 유산 '한글'

- 1997년 () (),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정
- (): 1989년 6월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 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전 세계 문해 증진을 위하여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
- 600년 전 무지하고 가난한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한글 보급 노력

<동영상과 독해의 이해를 돕는 실험>

1. 다음에 오는 문자들의 소리를 우리말로 표기하세요.

Hi [] I love you. []

We go to Korean school every Saturday. []

2. 다음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소리를 받아쓰세요.

3. 친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소리를 우리말로 표기하세요.

한국반	아름다운 한글	읽기
-----	---------	----

내가 외국 여행을 할 때의 일이었다. 커피숍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때 외국인 한 명이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어 왔다.

외국인: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나: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저도 한국에서 5 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어요.

나: 아, 그러세요? 어디에서 지내셨어요?

외국인: 광주에서 지냈어요. 서울에도 가끔 갔었지요.

나: 그래서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한글도 잘 읽을 수 있으세요?

외국인: 네, 한글은 읽기 쉬울 뿐만 아니라 쓰기도 쉬워요.

나: 그래요.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어서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어요.

외국인: 그런데, 한글을 어느 왕이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문자를 발명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나: 네. 1443 년에 세종대왕께서 여러 학자들과 같이 만드셨어요. 벌써 560 여 년 전 일이에요.

외국인: 대단하군요. 한글은 중국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나요?

나: 아니에요. 세종대왕께서는 한국말이 중국말과 다른데 문자를 중국 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문자, 즉 한자는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려워서 쉽게 배워 쓰기에 편하도록 한글을 만드셨어요.

외국인: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나: 그렇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과 우주의 모습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셨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글자예요.

외국인: 맞아요. '디스커버리'라는 과학 잡지에서도 한글이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평가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분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럼 여행 잘 하세요.

나: 저도 반가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나는 편지를 마저 쓰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을 만나서 매우 가슴이 뿌듯했다.

한국반	세종대왕 문해상을 아시나요	도전 수업자료
-----	----------------	---------

‘세종대왕 문해상’을 아시나요?

서정곤

사람들에게 혹시 ‘세종대왕 문해상’이나 ‘세종대왕상’을 들어 보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이상에 대하여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이 상의 이름을 처음 들으면 십중팔구(10 개 중의 8, 9 개)는 어떤 한글 관련 단체에서 주는 상이거나, 어느 가을날 공원 마당에서 벌어지는 글쓰기 대회에서 1 등에게 주는 으뜸상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상은 어떤 상인가? 세종대왕상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UN 에 속하여 있는 단체인 유네스코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정식 이름은 ‘세종대왕 문해상’이다. 1989 년 6 월에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 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전 세계에서 문해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상의 이름에 ‘세종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세종 대왕이 만든 한글이 그만큼 배우기 쉬워 글을 배우지 못해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없애는 글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상을 1990 년에 인도의 과학 대중화 단체에 처음 수여하였고, 그 뒤에 세계 곳곳에서 문해 증진에 커다란 공을 세우거나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나 개인에게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상금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상자들이 배출된 국가는 인도, 가나, 요르단, 튀니지,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필리핀 등 30 여 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 것도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 덕분이다. 세계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에서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국민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

21 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다. 문맹은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문맹 퇴치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 모두 간결하고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이다.

유럽에서 한국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전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베르너 자세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준다.

맨 처음 보았을 때에는 한글이 어렵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배워 보니까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글자 모양이 입 모양이나 발음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주 인상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열 살도 안 된 우리 집 아이들도 취미로 한글을 금방 깨우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비밀 편지를 쓸 때에 한글을 씁니다. 독일 말을 한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글은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열 살도 안 된 독일 어린이가 취미 삼아 배울 정도로 한글은 쉽고 과학적인 글자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면 관심을 가질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고귀한 것 속에 파묻혀 있으면 정작 그 가치를 모르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한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다.

다행히도 요즘은 세종 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사용법을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원리를 자세히 풀어 쓴 책이다. 석가탑, 다보탑, 고려청자, 승례문 등이 국보(국가보물)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듯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철자법으로서의 독창성과 문자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우리 문자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세계가 인정하였다는 뜻이 아닌가!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들>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베르너 교수>